"넘쳐나는 입시 정보, 큰 흐름부터 이해하는 데 도움 돼요"

거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자녀
중1, 초2

구독 기간
6개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평소 팔로하던 SNS 계정에서 〈내일교육〉을 소개하는 글을 봤어요.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걸 보고 관심이 생겨 구독을 신청했죠. 큰아이가 아직 중1이라 입시가 당장 닥친 건 아니지만,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 등 SNS에도 교육 정보가 많지만, 입시 용어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편적인 정보만 접하다 보니 오히려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아직 입시를 잘 모르는 편이라 읽으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중이에요. 특히 입시 제도나 교육 이슈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위클리 테마'를 관심 있게 봅니다. 고교학점제처럼 앞으로 아이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제도부터 최근 의대 관련 이슈까지 궁금한 기사를 골라 읽어요. 대입은 아직 먼 이야기라 모든 기사를 꼼꼼하게 읽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익혀두면 나중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녀 교육과 관련해 가장 큰 고민은?

당장은 고입이 가장 큰 관심사예요. 아이가 수학을 잘하고 학습에도 성실한 편이라 현재 선행 · 심화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학습을 하고 한국수학올림피아드(KMO) 등을 준비하면서 영재학교나 과학고 진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과학에 특별한 흥미를 보이진 않아서 실제로 이 길이 아이에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앞으로 영재학교나 과고에 도전할 수 있을지는 아이의 적성과 역량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교육〉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영재학교나 과고처럼 준비 과정이 다른 학교는 입시 정보를 좀 더 세밀하게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대입 기사도 조금씩 읽고 있지만 대입은 아직 먼 이야기인 반면, 고입은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예요. 학교별 특징이나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에게 적합한지 등의 실제 선택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Reporter's A/S

영재학교나 과고 진학을 고민한다면 고입 준비에 앞서 아이의 적성과 학교 교육과정이 잘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교육〉은 영재학교·과고를 비롯해 다양한 고교의 교육과정과 입학 전형, 학교 선택 시 고려할 점을 꾸준히 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중학생 학부모가 고교 선택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한 고입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본지 1201호
'선배맘이 전하는 특목·자사고의 진실 혹은 편견' 기사 참고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1246호

2026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34

심리→생명과학→식품 '찍먹' 아닌 연계로 찾아낸 길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기사가 기억에 남아요. 평소 잘 몰랐던 학과를 알게 됐고, 무엇보다 자기 전공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익숙한 진로만 생각했던 제 시야가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1243호

WEEKLY THEME |
2027 수시 하향 지원 뚜렷 속 지역 대학 약진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대입 판 바꾸나

"입시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입시 용어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접하면 오히려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의 주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니 제도나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